

ISA 2조 돌파 눈앞... '종합 재테크 통장' 자리매김 하나

출시 3개월만에 가입자 216만명 ... 증가세는 둔화

일부 '깡통계좌' 논란 속 실속경쟁도 본격화 예상

국민의 재산 증식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으면서 등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4일 출시 3개월을 맞는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굴리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SA는 출시 12주 차인 지난 7일 기준 누적 가입액이 1조9369억원으로 2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이런 실적을 근거로 어느 정도 종합 재테크 통장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누적 가입자 수는 216만7000여 명이다.

출시 보름 만에 100만 가입자를 돌파하는 등 초기엔 사전 예약 효과로 가입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후 200만명을 넘기는 데 10주가 걸리는 등 시간이 갈수록 증가세는 둔화하는 모습이다.

ISA 가입액은 출시 5주 만에 1조원을 돌파했고 8주 차에는 1조4000억원, 11주 차에는 1조8000억원을 넘겼다.

ISA 출시 초반에는 은행과 증권사들이 일단 고객을 유치해 계좌를 확보하려는 외형 경쟁에만 몰두한 결과로 불안전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사 창구에서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기보다는 고가의 해외여행권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고이자 환매조건부채권(RP) 같은 미끼상품 홍보로 고객을 유인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특히 증권사보다 지점망이 발달한 은행권에서 계좌부터 개설하고 보는 마케팅 전략을 펼쳐 가입액이 1만원 이하인 이른바 '깡통계좌'가 양산되기도 했다.

고객이 직접 자산운용을 결정하는 '신たく형'에 ISA 계좌가 편중돼 금융사가 투자 내용을 정해 놓은 모델포트폴리오(MP)를 고객에게 제시하고 자산운용을 위임받는 '일입형'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월 기준으로 신たく형의 누적 가입액은 1조7600억원으로 일입형(1760억원)의 10배 수준이었다. 가입자도 신たく형은 199만명인데 일입형은 17만명에 불과했다.

ISA 투자 자산이 지나치게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된 것은 신たく형 위주로 판매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전체 ISA 가입액의 70% 이상이 예·적금과 주기연계형 파생결합사채(ELB)·

기타 파생결합사채(DLB), 환매조건부채권(RP) 같은 안전자산에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출시 초기여서 신たく형에 몰린 가입자들이 안전자산에 돈을 넣고 일단 시장의 추이를 보는 경향이 강했고, 고이자 예·적금과 RP 등이 대거 특판상품으로 팔린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고는 있지만 1인당 평균 가입액이 차츰 커지면서 투자용 계좌로서의 질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1인당 평균 가입액은 출시 사흘 차에 42만원에 불과했으나 8주 차 76만원에 이어 12주 차에는 89만원으로 불어났다.

ISA 수익률 공시가 본격화되는 내달 말부터는 금융사 간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실속 경쟁도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ISA의 복잡한 수수료 체계와 수익률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사이트에 ISA 정보를 제공하는 'ISA 다모아' 메뉴(isa.kofia.or.kr)를 신설했다.

이달 말에는 증권사가, 내달 말에는 은행이 일입형 상품의 MP별 수수료와 수익률 관련 정보를 공시하게 된다.

내달 1일부터는 금융사 간 ISA 자금 이동도 허용돼 금융사들의 유치경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위장건강에 좋은 매실 나왔어요
도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청과코너에서는 수확철을 맞은 매실을 선보이고 있다. 매실은 엑기스, 매실주, 장아찌, 차 등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위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롯데백화점 제공)

■ 주간 증시 포커스

美 FOMC 등 대외 이벤트 잇따라

불확실성 장세 지속 가능성

주초엔 관망, 후반에 대응해야

시장의 예상을 깨고 한국은행이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6월 0.25% 인하 이후 1년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하는 것으로 금융위협 7명 전원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인하발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패파적(통화긴축 선호) 성향으로 분류되었던 이주열 한국은행총재는 '분명히'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며 금리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향후 조성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고 하반기 국내경제성장을 하위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만큼 이달이 금리인하의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발표 직후 2035포인트까지 상승했던 코스피지수는 단기상승에 따른 차익매물과 펀드환매가 증가하면서 금요일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기준금리인하에 따라 차입금 규모가 큰 건설주와 실질적 제로금리상태로 예금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및 금융상품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증권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실적악화 우려로 보험주는 약세를 보였다.

상당기간 지속되어온 저금리 상황에서 이번 금리인하 조치만으로 코스피지수의 장기박스권 흐름을 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금리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이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연방준비제도 엘런의장의 금리인상 연기 시사 발언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9592억의 순매수를 보였다. 지난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맞추어 4월 28일 이후 순매도를 보였던 6월물 선물을 5월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환매수했고 옵션시장에서는 상승포지션(콜매수 포맷)을 강화하면서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집중 매수해 수익을 극대화 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지난 주 7일부터 3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 평균 3천억이 넘게 순매수 했지만 만기 이후 10일에는 283억 순매도를 보였다.

이번주 증시는 미국 FOMC회의와 중국 A주의 MSCI 신중국시장 지수 편입여부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FOMC 회의는 동결가능성이 높아져 동결이 발표되어도 시장영향은 제한적 일 것으로 보이지만 15일 MSCI 정례회에서 중국 A주 지수의 편입여부에 따라 국내증시에 영향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회복하고 중소형주의 순환매가 상당기간 진행될 상황으로 주초에는 현금비율을 늘리고 주 후반 이벤트 발표를 지켜보고 시장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부지점장>

휴게음식점 '유기농' 표시 철저히 하세요

농관원, 허위 표시 단속 ... 벌금 최대 3000만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12일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유기농' 표시를 허위로 내건 업체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09개 농관원 사무소 단속반이 휴게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커피, 아이스크림, 과자, 떡 등 '유기농' 표시가 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유기농 커피, 유기농 아이스크림 등에 '유기'를 표기해 판매하고자 할 때는 유기농 가공식품 인증을 받거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

고 원료 사용의 사실관계만 표시할 수 있다. 유기농 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되면 국가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허위표시로 적발되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비자들은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또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ronment.go.kr)을 통해 유기농 표기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편의점 젊은층 전용은 '옛말'?

60대 이상 이용 증가율 69%

신한카드 연구소 1~4월 분석

60대 이상 고령층의 편의점 이용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신한카드 트렌드 연구소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지난 1~4월 편의점에서 신한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한 금액은 지난해 1~4월과 비교해 68.6% 늘어 전체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대와 30대는 각각 26.3%, 36.7% 늘어 전체 평균 증가율(38.1%)에 미치지 못했다. 40대와 50

대는 각각 51.9%, 57.4% 증가했다.

60대 이상의 편의점 이용액은 2014년(1~4월)과 비교하면 2년 만에 137.4% 늘어나며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용 건수도 60대 이상이 두드러졌다. 이 기간 60대 이상의 편의점 이용 건수는 59.4% 늘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50대와 40대는 각각 48.4%, 46.0% 늘었다.

반면 20대는 25.7% 늘어 증가율이 가장 낮았고, 30대는 32.9%였다. 60대 이상은 1건당 결제 금액도 가장 큰 편의점의 큰 손이었다.

편의점에서 1건당 결제금액은 평균 6373원이지만 60대 이상은 8558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5093원으로 가장 적었다. /연합뉴스

신축 4층 상가원룸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신축 상가원룸 / 3면 대리석 시공 / 코너자리

1층 (커피숍)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 30평
화장실 2개, 방 3개, 다용도실

★ 4층(주택) 거주 하면서 월수익 350만!!

▣ 매가 → 6억 8천만 (융1억5천)

010-6670-9800 010-7384-7800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p>▣ 서구 화정동(주유소)</p> <p>→ 토 300평, 건 142평 → 광천터미널 5분 4차선 도로점</p> <p>▣ 감정가 17억 → 최저가 17억</p>	<p>▣ 장성 삼서 (의료시설)</p> <p>→ 토 3492평, 건 1734평 → 상무대 입구, 병원 직영 최적함 → 전 요양병원 운영</p> <p>▣ 감정가 48억 → 최저가 27억</p>
<p>▣ 장성 삼서 (3층 상가 건물)</p> <p>→ 토 367평, 건 990평 → 1층(식당)2층(사무실) 2층~3층 (주차장) → 상무대 아파트 앞, 식당 밀집지역</p> <p>▣ 감정가 15억 → 최저가 4억 3천</p>	<p>▣ 북구 매곡동 (4층 상가 상가건물)</p> <p>→ 토 223평, 건 381평 → 1층 (식당) 2층~3층 (학원) 4층 (사무실) → 주변 아파트 단지, 4~5m 진입로, 주차면비</p> <p>▣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5천</p>
<p>▣ 북구 연제동 (상가주택)</p> <p>→ 토 84평, 건 155평 → 새천 아파트, 아파트 밀집지역</p> <p>▣ 감정가 5억 2천 → 최저가 3억 6천</p>	<p>▣ 남구 주월동 (5층 상가건물)</p> <p>→ 토 103평, 건 380평 → 1층 (사무실) 2층~5층 (학원, 사무실) → 재석초등학교 부근,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p> <p>▣ 감정가 7억9천6백 → 최저가 5억5천7백</p>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수요일 (오전)
▣ 입학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저권, 가정법원권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주) 대신경매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62-511-7800 010-6670-9800